

# 당정,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 대응 예고

### 이낙연 총리 “회계 집행 투명화 등 종합대책 마련을”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중심으로 과제 논의 중” 당정협의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정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회계 집행 투명화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상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지시했다. 회계투명화와 견제 강화, 감독 내실화 등도 주문했다. 그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 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회계 집행을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강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은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는 21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취할 중인

것으로 안다”며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리된 정부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도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의무 기입하도록 했다. 부당 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원명만 바꿔 다시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설립자가 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 급식이 문제가 되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극복하고자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대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원칙은 그렇게 정해 논의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 단풍구경하고 싶다면? 전주 한옥마을이 제격

#### 모바일 네비게이션 맵피 데이터 상위 분석 결과

전주한옥마을이 가을철 단풍 구경하기 좋은 여행지 1위로 선정됐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맵피의 목적지 검색어의 데이터 상위 500개를 분석한 결과, 단풍 구경하기 좋은 마을이 장소 1위로 '전주한옥마을'이 선정됐다.

한옥마을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곳곳에 오래된 나무들이 절경을 이루 가을 산책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모은다.

또 경기전의 가을풍경, 향교의 은행나무, 오복대에서 바라보는 전경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20개소가 불려 있어 전통의 멋을 배우고 체험하기에 적합하고, 전통연희극 '히히랑락', 마당놀이 '놀부가 떴다', 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문 대통령, 마크롱과 한-불 정상회담 “韓비핵화·평화정착에 프랑스 선구적 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조치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선구적 역할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는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났다”며 “여러 차례 전화로도 소통해 왔기 때문에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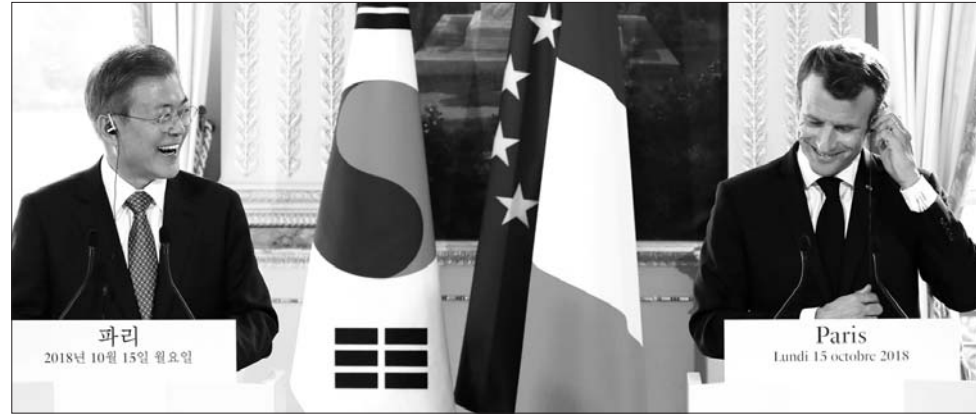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인사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짧은 점이 많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고 같은 시기에 임기를 시작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동기라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도 강하다. 올해는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프랑스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쉬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다음 달 종전기념일에 개최되는 ‘파리평화포럼’은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유럽과 한반도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걸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논의 외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인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중 밝게 웃고 있다.

다.

문 대통령은 “첫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며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인사 교류와 정책협정도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GGGI 참여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며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WTO 개혁 등 규범에 기반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의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넓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재의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두 나라 관련 산업이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먼저 공동 출자한 ‘한·프랑스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이번에 채택한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 세대 교류와 교육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한국의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의 6개 공과대학(INS A Group)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 후 두 번째 순방지인 이탈리아로 향한다.

### 전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성료

전북도 의용소방대의 재난대비 역할능력 강화와 시군의용소방대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18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6일 장수군 한누리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도내 15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및 가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화재전술 종합경연, 화합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15개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갈고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 방수자세, 개인장비착용 릴레이 등 열띤 소방기술 경연을 펼쳤다.

또 장기자랑 등을 재난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의용소방대원 상호간 화합을 다졌다.

특히 대회를 유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이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위해 쌀 100포를 장수군에 기증해 귀감이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총장 이호인

## VISION

###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총장 한영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